

01 교회소식

말씀퀴즈대회 왕중왕전

12년간의 말씀퀴즈대회 역대 수상자들이 경합을 벌인 '말씀퀴즈대회 왕중왕전'이 11월 11일 본당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02 생명의 말씀_ 영적인 사랑 시리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복음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기뻐하며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03 기획특집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04 간증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 하나님

우울증 등 온갖 질병이 치유된 손순희 집사와 우리 교회 방문 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인도 도로서 사무엘 박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58호 2012년 11월 1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 하신 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뜻을 깨달아 영육간에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사진 ①말씀퀴즈대회 왕중왕전이 치러진 우리 교회 본당 특설무대 ②시상대 위에 선 수상자들 ③방청객을 위한 즉석 퀴즈 ④주최측 운영위원들과 함께한 출전자들.

남선교회총연합회 주최 '말씀퀴즈대회 왕중왕전'이 지난 11월 11일 저녁예배 후 우리 교회 본당 특설무대에서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후원 속에 2001년 1회부터 2012년 12회까지 성도들의 말씀 무장을 위해 매년 열린 '말씀퀴즈대회' 역대 은상 이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출제범위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3년간 주보에 실린 금주의 성경구절 총 937구절(중복 제외)이었다. 성경의 여러 장절을 불러 준 후 의미가 다른 장절쓰기, 설교 동영상 및 찬양을 듣고 연관되는 장절쓰기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됐다.

출전자 20명 중 예선 10문제를 통해 결선 진출자 10명을 선발했다. 점수 집계를 하는 사이 방청객을 위한 즉석 퀴즈도 진행됐다. 결선 12문제는 스피드 퀴즈로 교구와 선교회, 전국 지교회에서 참석한 방청객들의 열띤 응원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이어졌다.

대상은 황금란 전도사(29교구 부교구장), 금상은 허현주 집사(여수만민교회), 은상은 이은선 집사(대전만민교회), 동상은 변현자 집사(2-2가나안선

교회)에게 돌아갔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황금란 전도사는 “지난 11년간 매일 성경 한 절씩 말씀 암송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감동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해 왔고, 특별히 이번에는 당회장님과 성도님들께 기쁨을 드리하고자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말, 대회가 공지된 뒤부터 출전자들에게는 ‘말씀이 곧 삶’이 됐다.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암송했으며 성경과 설교에서 찾아 깊은 뜻을 궁구했다. 그들은 “말씀 암송을 통해 기도와 예배가 새로워지고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한편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말씀 무장이 잘 돼 있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성령의 밝은 음성들을 들을 수 있다.”며 매일 성경 읽기와 성구 암송은 물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일구는 영적 무장이 크리스천의 기본임을 강조해 왔다. 13회 말씀퀴즈대회는 내년 9월경 열릴 예정이다.

추수감사주일 기념예배 및 성례전

11월 18일 주일 대예배는 추수감사주일 기념예배로 드린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심고 행한 것을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 는 절기(출 23:16)이다. 추수감사주일 기념예배와 저녁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섭리(시 50:23)라는 제목으로 ‘이 제단에 주신 모든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릇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영광에 대해 전한다.

저녁예배 설교 뒤에는 본당과 2, 3, 4, 5, 6성전, 유아실, 수도관에 소재한 각 지성전에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학습식은 두 주 전, 세례식은 한 주 전, 주일 대예배 후 본당에서 있었다.

여러분도 알아맞혀 보세요

- [예선 문제 1번]** 다음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총 네 개의 성구 중 다른 셋과 의미나 강조하는 바가 다른 하나의 성구의 장절은 무엇일까요? 번호를 쓰세요.
① 잠 15:1 ② 잠 10:11 ③ 잠 16:32 ④ 잠 15:4
- [결선 문제 10번]** 총 4개의 성경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성구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모두 합한 값은 얼마일까요?
① 행 20:31 ② 신 5:10 ③ 시 90:10 ④ 막 10:30
- [방청객을 위한 즉석 퀴즈 문제 2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 주님으로부터 차지도 받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받은 교회는 다음 중 어느 교회일까요?
① 에베소 교회 ② 라오디게아 교회 ③ 사데 교회 ④ 서머나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3:6)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지요. 그러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지요. 이처럼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으니 복음을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하지요. 디모데전서 2:4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내거나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창대히 이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보다 더 충성해 열매 맺는 사람을 볼 때 내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부흥하고 사랑받는 교회를 볼 때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 곧 사랑의 마음입니다.

2)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 사랑, 공의 등 진리에 속한 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작은 선행을 보고도 쉽게 감동을 받습니다. 또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송이꽃처럼 달다고 고백하며 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보기를 즐겨하지요. 나아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가령, 하나님 말씀에 ‘섬기라, 이해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니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싫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상대가 잘되면 함께 기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

지요. ‘상대가 잘못됐으면...’ 하고 악한 생각을 하거나, 상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애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변개하지 않는 마음, 진실함, 정직함 등 선의 마음을 좋아합니다. 선한 말과 행실을 기뻐하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자녀들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바냐 3:17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대로입니다.

혹여 자신을 볼 때 ‘나는 아직 온전히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아구나.’ 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되 실망과 낙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자체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리만 기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마음에 어둠과 비진리가 있을 때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말씀과 기도로 변화돼 비진리의 마음을 온전히 벗으면 진리만 기뻐하는 마음이 되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성도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피곤해하기도 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행함을 내보입니다. 즉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진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다르

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니 더 열심히 성결을 이루며 온 집에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지는 못한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2. 진리에 주리고 목마르면 축복

하나님 자녀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됩니다. 천국 소망과 영적인 사랑이 가득하니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지요. 또 진리로 변화될수록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니 삶에 행복이 넘칩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되, 나아가 진리에 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주리고 목마르면 음식과 음료가 간절히 생각나듯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이처럼 간절해야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양식 삼고 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 문제의 해결 방법과 축복의 비결, 구원과 영생의 길을 제시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축복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진리를 보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니 주변 사람들에게서 “참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듣지요. 또 하나님과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해 눈물이 나고, 작은 선행만 봐도 감동해 눈물을 흘립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흘리는 감사의 눈물, 영혼을 위한 애통의 눈물 등 선에 속한 눈물은 아름다운 보석이 돼 각자의 천국 집에 장식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의를 행치 않을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하게 되고, 나아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적극적인 표현이지요.

요한복음 14:6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한 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복음을 뜻하고,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복음의 역사,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일까요?

1.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1) ‘복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진리를 갈구합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 사상과 철학을 탐구하고 갖가지 종교 교리에서 진리를 얻으려고 하



교회 주소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말·공휴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렬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유료로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펼쳐오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며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셨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예비하심으로 십자가 섭리를 이루셨다.

또한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인생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 더불어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셔서 때를 좇아 공급하심으로 충만함을 더해 주신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딤후 2:4)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알곡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란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17~18)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진정 믿었다면 자신의 삶 속에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곧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약 2:17)이 아닌 ‘얼마나 주님 말

씀대로 행하며 살았느냐’가 바로 그 증거로서 구원의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알곡과 쭉정리로 나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고 변화되도록 늘 성령을 통해 진리로 인도하신다.

죄를 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 마음을 닦아가도록 때로는 육체의 심판도 허락하신다. 최후의 백보좌 대심판 때 지옥이 아닌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한 성령의 심판, 진리의 심판, 육체의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임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심판이란?

“진리를 벗어났을 때 오는 마음의 괴로움과 곤고함”

요한복음 16:8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쳐 준다. 빛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악을 발견케 하는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발견된 악을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살 때는 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반면에 발견된 악을 버리려 하

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마음이 괴롭고 곤고하다. 자기 안에서 두 마음, 즉 진리를 좇으려는 마음과 비진리를 좇으려는 마음이 서로 싸우므로 힘들고 곤고한 것이다.

이처럼 진리를 벗어났을 때 마음의 괴로움과 곤고함이 오는 것을 성령의 심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어둠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점차 성령이 소멸돼 간다(살전 5:19). 따라서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켜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한다.

진리의 심판이란?

“진리의 행함 여부에 따른 형통과 불통, 축복과 시험 환난”

요한복음 14:6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우친 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진리를 100%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형통함의 축복이 임한다. 더불어 강건함과 물질

의 축복도 받는다. 반면에 깨우친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는 사단의 송사를 받아 물질의 어려움, 질병, 가정·일터·사업터의 문제 등 시험 환난이 찾아온다.

이처럼 진리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을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 형통이나 불통이나, 축복이나 어려움이나가 정해지는데, 이것을 진리의 심판이라고 한다.

육체의 심판이란?

“진리의 심판이 현저히 결과로 나타난 상태에 이르는 것”

진리를 듣고 깨우쳤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 가정의 불화와 질병 등이 온다. 사업터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며 물질의 어려움도 겪게 된다. 이처럼 진리의 심판이 현저히 결과로 나타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육체의 심판이라고 말한다.

성령의 심판에서 회개하고 돌아키지 않으니 진리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며, 진리의 심판에서도 회개하고 돌아키지 않으니 육체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알곡인지 쭉정인지도 분명히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이 백보좌 대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로 결정된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며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불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즉 7년 환난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이 탄식할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해 돌아켜야 한다. 설령 육체의 심판에까지 이르렀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키면 영원한 불의 심판만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는다는 오랜 염원 속에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기대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11
November

주요프로그램 안내!
Programming Guide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2차 영혼육 14-15
- 3차 영혼육 1-3
- 위로부터 난 지혜 1-5
- 천국 31-35/지옥 11-15
- 창세기 강해 44-48

GCN TV설교

- 이수진 목사의 '팔복 4-8'
- GCN TV특강 '장구영 목사의 십자가의 도 1-4'
- 김수정 목사의 '명철2'
- 신동초 목사의 '성령의 역사3'
- 이희선 목사의 '약의의모양'

찬양 프로그램
GCN 파워프레임즈 7-12

해외성회 시리즈

- 페루 연합대성회 2-1, 2-2
-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통합편'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GCN 특선명화
• 나사렛 예수 1,2부

“우울증과 온갖 질병이 치료돼 날아갈 듯해요”



손순희 집사 (2대대 19교구)

작년 12월, 갑자기 숨이 막히는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명치 부위가 가끔씩 따끔거렸지요. 병원 진단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유동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 체중은 날로 감소했지요. 올해 8월, 체중이 이전보다 10kg이나 줄고 기력도 없는데 식욕까지 잃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려다 죽는 건 아닌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함께 있지 못할 때가 많아서 외롭고,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이혼까지 생각했지요.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온몸이 떨릴 만큼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제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남편은 깜짝 놀라 만사를 제쳐놓고 아침마다 만민기도원 집회에 데려다 왔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자식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꼭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지만 응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올 9월 초, 불안을 동반한 우울증이라는 병원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며 험담했던 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일, TV 드라마를 시청하느라 기도를 쉬었던 일 등이 떠올랐지요. 일주일 동안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했습니다.

그 후 산상기도 중 잠시 하산하신 당회장님께 세 차례 기도를 받았습니. 첫 번째는 9월 21일 금요일야예배 전, 많은 성도와 더불어 전체 환자가 도로 받았지요. 불안 증세가 호전되고 식사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28일에는 당회장님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면 안 되지요.”라고 권면하신 뒤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다시 한 번 새겼고, 그 뒤 놀랍게도 불안증세가 사라졌습니다. 10월 7일, 세 번째 기도를 받은 뒤에는 위로부터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해 날아갈 듯했지요. 할렐루야!

지금 저는 역류성 식도염도 치료받고 체중도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 외에 빈뇨증, 허리디스크, 가래, 생리통, 두통, 피곤하거나 닭고기를 먹을 때 생기는 우측 눈의 충혈 증세까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장결자였던 남편이 11년 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일입니다.

이제 저는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요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열심히 ‘만민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응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인도 타밀나두 주 CMC 벨로르 의대 출신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2005년, 인도 첸나이 시에서 개최된 WCDN ‘제2회 국제 기독교의학 콘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은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받은 사례들을 발표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지요.

24년 전, 저는 하나님 능력으로 유방암을 치료받은 체험이 있기에 ‘치료하시는 여호와’(출 15:26)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런 세계 WCDN 사역은 매우 흥미로웠지요. 특히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된 사례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콘퍼런스를 통해 첸나이만민교회 담임 한정희 목사님을 알게 돼 영어와 타밀어 ‘만민뉴스’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올해 8월, 만민중앙교회 창립 30주년 축하행사 소식을 듣게 됐지요. 저희 부부는 교회 방문은 물론, 작년부터 백혈병을 앓던 둘째 며느리를 위해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고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권능이 넘치는 교회 모델, 만민중앙교회”



도로시 사무엘 박사 (왼쪽)

한정희 목사님은 한국 방문 전 읽어 보라며 이재록 목사님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을 권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희 부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순종하는 이재록 목사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했지요.

10월 2일, 한국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만민중앙교회 성도들의 환대를 받으며 행복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만나 빈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매우 겸손하고 신실하셔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 목사님께서 저희 며느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 확인해 보니 며느리의 백혈병 증세가 호전된 사실을 알 수 있었지요. 또 예배 시 증거되는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강력해 감동과 충만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신실한 리더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바로 만민중앙교회가 그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제반 사역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성도님들이 목자와 한마음 한뜻을 이룬 모습은 칭찬할 만했지요.

이번 방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만민중앙교회가 더욱 힘차게 세계 선교를 이뤄 가길 기도합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림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기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920-4512, 010-3343-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8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